

오늘부터 5월국회... '연금개혁' 최대 난제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의사 일정 일단 합의

내일 연말정산 등 처리

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개원한다.

여야는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2일 본회의에선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주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4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 여야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2월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상욱 대법관 단독 인준"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협상에서 우선시키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만남부터 의견차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둔 여야의 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상욱 대법관의 단독인준 처리 문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종걸 대표님이 대법관 인준 정문득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누구보다 섬심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며 "충분한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과해줘서 고맙다"면서도 저희 당이 (박상욱 단독인준 처리 문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 자리에서 사실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상호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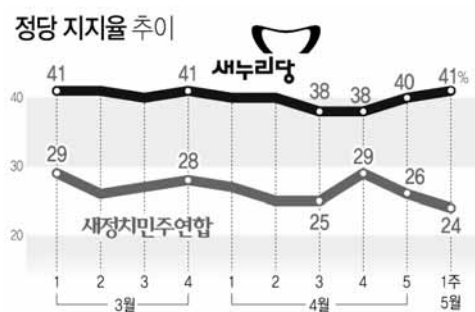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상욱 대법관 인준동의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조치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신뢰를 바탕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거중 조정을 잘하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성과를 많이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비켜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결합, 정당 지지도... 새누리 41%·새정치 24%

문재인 대표 체제 후 격차 최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지지도 격차가 지난 2월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선출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밝혔다.



표본: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약 1,000명.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 3.1%p. 조사방법: 휴대전화 임의 골기(FGD) 지리/한국갤럽

한국갤럽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 16%)한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41%, 새정치민주연합은 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는 2%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지난 2월 초 문 대표가 선출된 이후 최대 격차다. 정의당의 지지도는 5%, 기타 정당은 1%, 없음·의견유보는 30%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긍정평가 비율 39%, 부정평가 비율 52%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또한 여야가 지난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1%, 반대 42%로 반대 의견이 찬성 견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주로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나왔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찬·반 비율은 찬성 44%에 반대 29%로, 찬성 응답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반면 20~50대 응답자의 찬·반 비율은 반대 응답비율이 찬성보다 13~24%포인트 높아 반대 여론이 더 강했다. /연합뉴스

새정치 원내수석 부대표에 이윤석·이춘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수 원내수석부대표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새 원내수석에 재선의 이윤석(무안·신안), 이춘석(익산)의원을 지난 8일 지명했다.



이윤석 의원 이춘석 의원

이윤석 의원은 원내기획을, 이춘석 의원은 대외협력에 담당하게 된다. 이윤석 의원은 원내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카운터파트인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과 의 의사일정 협의 등은 이춘석 의원이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동 원내수석 부대표 체제를 구축한 것은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고 원내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윤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외 간사와 당 수석대변인 출

신으로 당무에 능통해 당무를 총괄하는 원내기획 수석부대표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춘석 의원은 국회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예산국회를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추고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역임하며 전략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차기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65년간 1702조 세금폭탄"

인상반대 입장 발표... "보험료 1인당 209만원 더 내야"

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또한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

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저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이후 209만원으로 정정)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

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정산 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064억원과 지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의원 들쭉말도 조용한 결혼식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큰 딸에 이어 작은 딸의 혼사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치른 것으로 지난 8일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직계가족 27명만 초대된 가운데 작은 딸의 결혼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신랑 측 하객 30여명을 합쳐도 모두 60명도 참석하지 않은 소규모 결혼식이었으며, 전현직 동료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에게도 일일 소식을 전하지 않아 식당에는 정치권 인사가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생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릭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NAVER **간식왕**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